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상황

2면

네타냐후는 왜
이토록 잔인하게
공격하나?

4면

한국 정부·기업과
이스라엘의
협력 관계

6면

이스라엘 대사관은
왜 추방돼야 하나?

7면

왜 두 국가 방안은
해법이 될 수
없는가?

12~13면

하마스는
어떤 세력인가?

14면



팔레스타인의 저항 정당하다

가자 남부 소개는 인종청소를 위한 것이다

관련 기사 4면



영국



미국



부산



인천

국제적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상황을 훑어보기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김종환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하는 시위가 국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는 11월 11일 약 80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과 연합하는 “또 하나의 슈퍼 파워”라 불렸던 반전 시위와 비슷한 규모였다. 두 주 전에 30만 명이 모였던 것의 거의 세 배 규모다. 영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그간 시위 금지 운운한 극우 내무장관이 경질되도록 만들었다.

18일에도 전국적으로 약 100곳, 수도 런던에서만 10곳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25일에 또다시 전국 집중 집회가 예정돼 있다.

미국에서는 11월 4일 수도 워싱턴에서 30만 명이 참가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관련 기사: ‘세계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시위가 계속 성장 중!’ (본지 481호)] 그 이후로도 미국 권력자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을 향한 분노가 지하철역 점거 등 시위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18일에는 민주당 캘리포니아 지부의 행사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대 수천 명의 항의로 도중에 중단됐다. 17일에는 시위대가 우익 언론 <폭스 뉴스>의 뉴욕 본사 건물 로비를 점거하며 친이스라엘 편파 보도에 항의했다. 앞서 <뉴욕 타임스>도 9일 비슷한 항의를 당한 바 있다. 하버드대학교 등 대학가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이어졌다.

캐나다의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는 4일에 이어 18일에도 대규모 시위로 도심지가 마비됐다. 시위대는 4시간가량 행진하면서, 캐나다의 원주민 학살 역사와 팔레스타인

문제는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리스에서 17일은 군부 독재 반대 학생 봉기 50주년을 맞는 날로 수만 명 규모의 시위가 열렸는데, 참가자 상당수는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고 나왔다. 그리스 정부는 더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가혹하게 탄압하지 못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지난달 수천 명이 참가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이어 18일에도 네 번째 집회를 이어 갔다. 강경 우익 정부가 무슬림 배척을 부추기고, 파시스트와 극우가 해마다 대규모 행진을 조직하는 이 나라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1일 케이프타운에서 수만 명이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스라엘은 21일 자국의 남아공 주재 대사를 스스로 불러들였다.

아일랜드에서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압력으로 정치권에서 이스라엘 대사 추방이 쟁점이 되고 있다.

12일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거의 1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지 행진에 참가했다. 반면 이스라엘 지지 시위대는 1000명 규모에 불과했다.

일본에서도 이스라엘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여러 곳에서 이어지고 있고, 아랍인과 유대인 참가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19일에도 1500명이 “가자를 살리자”며 신주쿠를 행진했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 친이스라엘 세력의 반격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세계 최강대국 지배자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2일 친이스라엘 시위대 15만 명이 “유대인 배척 반대”를 내걸고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그 집회는 인종차별 반대와 전혀 무관한 극우 집회였을 뿐이다. 그 집회에는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RN)의 지도자 마린 르펜과 당 사무총장이 참가해 힘을 실었다.

반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그 집회 전날 수만 명을 동원했고, 18일에도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참가해서 “팔레스타인 저항 만세”를 선언하며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을 이어 갔다.

독일 정부는 경찰이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참가자들의 슬로건을 일일이 검열할 만큼 시위대에 적대적이다. 한 여성 참가자는 ‘이스라엘은 테러 국가’라는 팻말을 준비했다 연행됐다. 그럼에도 19일 베를린에선 수천 명이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에 나섰다.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크게 벌어지기도 하지만, 아랍 정부 대부분은 가혹하게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13일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개최하려 했다는 이유로 25명이 체포됐다. 지난달 중순 이스라엘의 알라호리 병원 폭격 직후에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며 요르단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진격을 시도했다.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요르단에서는 1000명 이상이 연행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집트인 활동가 호삼 엘 하말라위는 “불만이 아주 광범하다”고 말했다.

“SNS에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관련 소식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이집트 독재자] 엘시시나 다른 아랍 지배자들을 조롱한다.

“가자 지구 전쟁이 장기화하면 뭔가 일이 터질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다.”

서울에서는 18일 9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이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있었다. 서울에서는 전쟁 발발 직후인 10월 11일부터 연대 행동이 이어져 오고 있고, 팔레스타인 현지 언론 <슈아뉴스>에 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18일 시위는 최근 이스라엘이 병원 5곳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을 규탄했다. 또한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 독립’이라는 뜻의 영어 구호가 인종 학살을 지지한다는 이스라엘 대사관의 비방을 반박했다.

부산 서면에서도 19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이 있었다. 한 국인과 아랍계 이주민뿐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러시아 등지에서 온 이주민 등 모두 2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에 고무돼 앞으로 더 많은 행동을 이어가자고 결의했다.(관련 기사 16면)

17일 인천 주안역 앞에서도 퇴근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팔레스타인 연대를 호소하는 집회가 열렸다. 무려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인천에 사는 아랍인과 한국인 중학교 교사가 발언했다. 같은 날 수원역 앞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를 호소하는 홍보전이 진행됐다.

wspaper.org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황 및 국내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소식 등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성명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의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 현수막 게시 정당하다

이스라엘 대사관은 매도 말라

11월 15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팔레스타인 연대 구호인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여 독립하라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구호를 “심각한 증오 표현”이라고 공격하며, 이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대사관 앞에 건 노동당·녹색당·정의당에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다.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 구호가 “이스라엘 국가를 파괴하고 이스라엘인들을 인종 학살하겠다는 구호”라고 주장하며 11월 6일 미국 하원의 라시다 틀라입 징계 결의를 인용했다. 미국 하원은 팔레스타인계 의원 라시다 틀라입이 이 구호를 외친 시위 영상을 ‘X’(옛 트위터)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터무니없게도 그를 징계했다.

이스라엘 대사관은 “정의당이 이 구호의 뜻을 알고도 현수막 게시를 승인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틀라입 징계 결의를 인용하며 국회 의석이 있는 정의당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은근한 협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사관이 “이스라엘인에 대한 인종 학살”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인을 인종 학살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아닌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종 학살이라는 올바른 규정에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11월 6일에도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한국 기자들에 대해서도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스라엘 공습 사망자는 학살 희생자라고 쓰면서 하마스 학살로 숨진 이들은 살해 희생자라고만 표현하는데, 이는 불공평하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걸린 현수막

분출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구호(이자 노래 가사)는 “인종 학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구호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동지중해 해안까지(“강에서 바다까지”)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 단일한 세속 민주 국가를 수립하자는 애초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목표에서 유래한 것이다.

국제적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며 반세기 넘게 이 구호를 함께 외쳐 왔다.(관련 기사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 독립” — 분노의 외침이자 진정한 해방 요구를 가까이 공유하자)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이스라엘인을 멸절시키려는 인종 학살”을 결코 주장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대사관은 “하마스가 자신들의 강령 제20조에서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이스라엘 국가 파괴를 명

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조항은 해방 의지를 표현하는 것일 뿐 이스라엘인 몰살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곡해일 뿐이다.

게다가 해당 조항은 역사적 팔레스타인을 모두 되찾아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 일부인 1967년 이전 국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도 말한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이런 구호에 “인종 학살”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유대인 배척자로 매도하고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정치적 흠집을 내려는 것이다.

물론 유대인 배척은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우리는 이에 분명히 반대한다. 그러나 유대인 배척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아니라 극우의 어젠다이다.

외려 이스라엘이야말로 극우와 거리낌 없이 손잡고 있다. 현 이스라엘 재무장관 스모트리치치는 성소수자 혐오와 파시스트를 자처하는 인물이다.

이스라엘 국가가 모든 유대인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세계 곳곳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인종 학살에 경악해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 독립!” 구호를 외치며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국가는 팔레스타인 연대가 유대인 배척이라는 거짓 비방을 거둬들여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것은 유대인 배척과 등치될 수 없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탈에 기초하고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끝없는 폭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제국주의의 경비견 이스라엘 국가에 반대하는 것은 유대인 배척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옳게도 녹색당은 16일 성명을 발표해 이스라엘 대사관을 규탄했다. “폭력과 학살을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가 자신들이 대량 학살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기원과 역사를 망각한 언어도단이다. ... 이스라엘 정부는 불법 점령과 학살을 중단하라.”

같은 날 정의당도 국제연대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대량학살의 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팔레스타인 민중이 자유와 평화를 획득할 때까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 독립” 구호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보란 듯이 내건 것은 완전히 정당하고, 이스라엘 대사관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옳다.

2023년 11월 16일

노동자연대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57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제2의 나크바를 원하는 네타냐후

소피 스콰이어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미국은 가자 지구의 앞날에 대해 견해가 엇갈린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A)가 통치하는 서안 지구가 통합된, 팔레스타인인에 의한 통치” 계획을 제시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더 전투적인 단체들을 감시하게끔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저항을 약화시킬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블링컨은 그런 계획에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이 동등한 수준의 안보·자유·존엄을 누리며 각자 국가에서 나란히 살아갈 경로”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일이 실현 가능하다는 생각이 수십 년째 유포되고 있지만, 이는 환상

일 뿐이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이런 거짓말에 조차도 장단을 맞추지 않으려 한다.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가자 지구 통치를 이스라엘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언제까지고 가자 지구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네타냐후는 이렇게 덧붙였다. “가자 지구에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다.” “통제권을 다국적군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계속 통제”할 것이다.

지난주 일요일, 네타냐후의 정당 리쿠드당 소속인 이스라엘 농업부 장관 아비 디히터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가자판 ‘나크바’(대재앙)를 추진하는 중이다.”

출처 Sophie Squire, 'Netanyahu wants new Nakba' (2023. 11. 14) / 번역 김준호



사진 출처 Kobi Gideon/ GPO



사진 출처 ISM Palestine

제멋대로 이스라엘군(IDF)을 사열하는 총리 네타냐후(위)와 군용 화기로 무장한 이스라엘 정착민들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서안지구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서안 지구 일부를 포위하고 있다고 헤브론의 움프 알카이르 마을에 사는 에이두 씨가 전했다.

에이두 씨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정착민들이 제멋대로 날뛰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려 떠나면 서안 지구는 정착민들에게 내맡겨지곤 해요.

“이스라엘군은 정착민들에게 군용 차량을 지급했습니다. 이 정착민들은 심지어 군복을 입고 있어요.

“상황은 10월 7일 이전에도 험악했습니다. 정착민들의 공격이 10월 7일에 시작된 건 아니지만,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이스라엘군과 정착민들은 도로를 봉쇄했습니다. 우리 팔레스타인인들을 고립시킨 거예요. 저들은 우리가 주요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왕래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립돼 있어요. 서안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도해 줄 언론인도 없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움프 알카이르 마을 주민들에게 외국인의 마을 출입이 금지됐다고 했다. 지난주에 이 마을을 방문하려던 브라질인 활동가들을 군인들이 쫓아와서는, 또 오려고 하면 자동차를 압수하겠다고 으러댔다.

에이두 씨는 이스라엘군과 정착민들의 탄압·위협·괴롭힘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악몽이라고 덧붙였다. “정착민들이 땅을 원한다는 걸 알아요. 땅을 얻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정착민들은 올리브 나무를 베어 버리고, 가축과 농부를 공격해요.

“우리는 내일이 두려운 처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어서 끝나기를 기도해요. 왜냐하면 현재, 바로 지금, 서안 지구는 비상 상황이거든요. 무법천지예요. 저 자신과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에이두 씨는 지난주 일요일에 이스라엘군이 움프 알카이르 마을에 들어닥쳐 노동자들을 구금했다고 했다. 시온주의자들에 의해 살던 집과 땅에서 내몰리는 서안 지구 주민들에게 이는 매일같이 겪는 현실이다.

출처 Sophie Squire, 'Settlers on murderous rampage in West Bank' (2023. 11. 14) / 번역 김준호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paper.org



wsp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paper
wsppaper_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ISSN 2005-8217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인필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paper.org

9 772005 821003 46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한사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영국 노동당

모두의 예상대로 키어 스타머가 이끄는 영국 노동당은 리시 수낙의 보수당 정부를 따라,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전쟁을 줄곧 지지했다. 이에 반발해 11월 15일 노동당 국회의원 56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휴전 촉구 결의안에 찬성 투표했다. 그중에는 예비 내각 구성원 10명도 포함돼 있었고 그들은 예비 내각에서 물러나거나 퇴출됐다.

이 반란표가 낳은 파장으로, 지난 주말 스타머를 비롯한 전쟁 지지 노동당 국회의원들의 사무실 앞에서 잇달아 시위가 일어났다. 예비 내각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는 자신이 “위협받고 있다”고 불평했다. 리브스는 스타머가 LBC 방송에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전력과 수도를 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삼시간에 전국의 노동당원들 사이에 퍼진 분노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스타머의 이스라엘 지지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것은 그런 입장이 시온주의 비판을 유대인 혐오로 모는 거짓 비방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스타머는 그 비방을 이용해 전임 노동당 대표인 제러미 코빈을 원내 노동당에서 몰아내고 좌파의 더 광범한 일부를 당에서 축출했다. 이것의 연장으로서 최근 노동당은 국회의원 앤디 맥도널드의 당원 자격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정지시켰다. 노동당은 맥도널드의 다음 발언을 문제 삼았다. “우리는 정의를 이룰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모두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타머가 이스라엘을 지지하



영국 노동당은 거대한 팔레스타인 연대 물결을 외면한 채 집권에만 골몰하고 있다. 11월 15일 런던 국회의사당 앞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는 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노동당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 있다. 현 정부를 소생시키려는 총리 수낙의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내무장관 수엘라 브레버먼을 경질하면서 보수당 내 유럽연합 탈퇴파와 잔류파 모두가 싫어하는 데이비드 캐머런을 외무장관에 임명한 것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스타머는 다음 총리직을 맡을 때무새를 가다듬으며, 그의 정부하에서도 영국 자본주의는 안전할 것이라고 지배계급을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코빈과 좌파를 쫓아낸 것도 그 과정의 일환이었다. 같은 노력의 일환로서 레이철 리브스는 지지자들이 “대담하다”고 추켜세운 기후 위기 대응 경제 정책을 폐기해 런던 금융가의 환심을 사려 했다.

가자 전쟁에 대한 스타머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휴전 촉구 결의안이 의회 표결에 부처지기 전 리브스는 ‘BBC 라디오4 투데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1년 안에 집권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G7의 합의를 깨고 싶지 않다.”

G7은 주요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클럽이다. G7은 대체로 — 전부는 아닌데 프랑스가 항상 예외이기 때문

이다 — 미국과 독일을 따라 이스라엘의 전쟁에 무조건적 지지를 제공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만큼이나 확고하게 휴전을 반대했다.

입증

스타머는 자신도 G7의 거물들 사이에 끼 수 있는 인물임을 입증하려 한다. 그러다가 당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도 개의치 않으려 한다. 이 또한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여당이 된 노동당은 언제나 영국 제국주의의 이익을 방어했다. 예컨대 1949년에 노동당 정부는 군사 동맹 나토를 구축하는 데서 핵심적 구실을 했다. 또 다른 단적인 사례로, 현재 많은 예비내각 성원들이 영웅으로 떠받드는 토니 블레어는 조지 부시 2세의 “테러와의 전쟁”과, 2000~2005년 제2차 인티파다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진압을 맹렬하게 옹호했다.

그러나 과거에 노동당 총리들은 때때로 미국과 기꺼이 거리를 두기도 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핵무기를 동원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을 우려한 당시 영국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는 그해 12월 워싱턴을 방문해 당시 미국 대통령 트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루먼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다. 1960년대 말 당시 총리 해럴드 윌슨은 베트남 전쟁에 영국군을 파병하라는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의 압력을 물리쳤다.

이러한 운신의 폭은 이제 사라진 듯하다. 스타머는 자신을 서방 제국주의의 충성스런 하인으로 내세우려 한다. [최근 코빈이 이스라엘을 거듭 규탄한 것을 두고] 스타머가 “코빈의 노동당 국회의원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말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코빈이 당 대표 시절 지배 계급에게 그토록 공격받은 이유 하나도 바로 그가 오랜 반 제국주의 운동가였기 때문이다.

스타머가 이끄는 노동당의 변화는 코빈뿐 아니라 노동당 좌파의 양식 있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선택을 제기한다. 계속 주변화되고 입막음당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중시하는 대의를 위해 싸울 새로운 공간을 찾을 것인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이 거대한 반 제국주의 운동은 노동당이 아닌 사회주의적 대안을 건설할 절호의 기회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번역 이원웅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예고
노동조건 개선과 지하철 안전을 위한 정당한 투쟁

★ 서이초 '무혐의' 조사 종결
경찰 조사도, 교권 보호 대책도 무성으로 일관하는 정부

★ '아르헨티나판 트럼프' 밀레이, 대통령 당선되다

★ 서평 《전세지옥 —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

노동당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 있다.

스타머는 다음 총리가

될 준비를 하면서

그의 정부하에서도

영국 자본주의가

안전할 것이라고

지배계급을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다

인종학살자 이스라엘과 협력 늘려 온 한국 정부와 기업들

김영익

10월 27일 윤석열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가자 전쟁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기권했다. 그 결의안에 하마스 비난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말이다. 사실상 이스라엘을 감싼 것이다. 그 전에도 윤석열 정부는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비난했다.

1960~80년대에 한국 정부는 ‘오일머니’를 가진 중동 정권들을 의식해 이스라엘과의 관계 증진에 신경썼다.

그러다가 1993년 오슬로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진전되기 시작했다. 이 무렵에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사관을 설치했고 양국 간 교역도 증대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다. 이 협정은 이스라엘이 아시아에서 경제적·외교적 입지를 키우는 발판이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과의 교역이 한국의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크지 않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수출과 반도체 장비 수입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이고, 삼성전자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과 군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꽤 진전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군수산업을 강조하는 것과도 관련있다. 한국 무역협회는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로 “한국의 제조 역량과 [항공우주,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등] 이스라엘의 첨단기술 간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양국 정부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7700만 달러의 첨단기술 개발 기금을 조성하고 197개 과제를 선정했다.

군사

그런데 이스라엘의 첨단산업은 이스라엘 국가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적극 육성한 부문이다. 미국이 그에 필요한 기술과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왔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억누르려면 첨단산업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군수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의 이스라엘 기업과 손잡는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억압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핵심 기능과 제휴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2021년 한화시스템은 이스라엘

군수 기업 엘빗시스템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 및 항공전자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엘빗시스템스는 이스라엘군 무인기의 85퍼센트를 납품하는 업체다. 그 무인기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감시하고 공격하는데 쓰이고, 해외 바이어들에게는 “전투에서 성능을 입증했다”고 광고된다.

올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스라엘 기업 인피니덤에 투자했는데, 인피니덤 또한 무인기 관련 기술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다.

또,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엘빗시스템스,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과 무인기 공동 개발과 기술 협력을하기로 했다. IAI가 만드는 무인기, 전투기 등은 모두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등 팔레스타인인 공격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인 ‘다나’는 최근 이스라엘 정부에게서 동지중해 연안 일부 구역의 해양 가스전 탐사권을 획득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있는 동지중해 연안에는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다. 가자지구 연안에서도 2000년도에 가스 전들이 발견됐다. 이를 두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초대 의장 야세르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의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지영 나눔문화 글로벌평화나눔팀장은 “이스라엘이 2000년부터 팔레스타인의 가스전 접근을 금지”하고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옥죄는 와중에 ‘다나’는 가스전 탐사에 뛰어들어 거기서 득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HD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가 팔레스타인인들의 가옥과 건물 등 마을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이하 BDS)를 호소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연합체 ‘팔레스타인BDS위원회’의 항의에도 HD현대건설기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걸프 연안국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의식해, 서방 국가들만큼 이스라엘 지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근래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꽤 빠르게 진전시켜 왔다.

게다가 이번 전쟁에서 윤석열 정부는 되도록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듯하다. 민주당은 가자 전쟁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기회주의적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한국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자본주의적·친서방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스라엘과 협력하며 그들의 전쟁 범죄에 눈감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대표 군수 기업 엘빗시스템스와 손잡은 한화

대학과 이스라엘

지난해 국영기업체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한국-이스라엘 FTA 체결 이후 한국과 이스라엘의 산업 기술 협력에 연구소와 대학의 참여가 적극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코트라의 《2023 이스라엘 진출 전략》).

이미 이스라엘과 한국 대학 간의 교류는 진행되고 있다.

2019년 연세대는 이스라엘 대통령 레우벤 리블린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고, 테크니온공과대와 텔아비브대 등 이스라엘 5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그런데 테크니온공과대는 이스라엘 군대와 군수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비판을 받아 왔다(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 보고서》). 테크니온이 이스라엘 군수 기업들과 공동 개발한 무기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해 쓰이기 때문이다.

11월 9일 미국 코넬대 학생 200명은 교내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하며 코넬대와 테크니온공과대의 파트너십을 비판하기도 했다.

텔아비브대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민간인 공격”을 전쟁의 핵심 원리로 삼은 이스라엘의 “다히야 독트린” 개발에 기여하고 수십 종의 무기를 개발한 대학이다.

그래서 두 대학 모두 팔레스타인BDS위원회가 지정한 보이콧 대상이다.

같은 때에 건국대도 이스라엘의 벤구리온대, 하이파대와 상호 교류 협력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벤구리온대는 2011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대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억압을 문제 삼아 25년간의 교류를 끊었던 곳이다.

지난해 고려대와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는 한국·이스라엘 양국 정부 지원 아래 양자 이미징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와이즈만 연구소는 이스라엘 핵무기 개발프로그램과 생화학 무기 개발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관이다.

한국 대학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도움 주는 기업들과 관계 맺고 있는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추방돼야 한다

이 기사를 읽기 전에 6면 '인종학살자 이스라엘과 협력 늘어 온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먼저 읽으시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인종 학살을 지속하면서,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한 국제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추방 요구는 팔레스타인 저항에 연대하는 활동의 일환이다. 이스라엘 대사관 추방 운동의 필요성을 이스라엘 국가의 성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대다수 언론은 이번 전쟁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한다. 하지만 이는 피상적인 시각일 뿐이다. 이 전쟁의 시작은 75년 전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그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과 성격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은 시온주의다. 시온주의의 목표는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단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이스라엘을 예외적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주인 없는 땅에 건설된 국가가 아니라, 선주민인 팔레스타인인들을 정착민들이 인종 청소하고 건설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런 예외적 성격은 75년이 지나도록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같은 인권단체들도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이스라엘이 "아파트헤이트" 정치 체제를 취하고 있다는 오랜 비판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

이는 이스라엘 국가의 경제적 토대와 떼어놓고 볼 수 없다.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막강한 지원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을 것이다. 초창기엔 영국이, 이후엔 미국이 자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중동에서 관철시키는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삼았다. 이스라엘은 그 "경비견" 구실(이스라엘 신문 <하레츠>의 표현)을 대가로 막대한 후원을 받았다.

식민 정착민 국가

이스라엘의 경제의 주요 산업인 첨단 산업과 군수 산업 등은 특히 미국의 후원이 없다면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자국 노동계급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주택, 의료, 교육 등 각종 공공 서비스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국가의 본질적 성격과 만행을 폭로하고, 그 존립 정당성에 도전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근원부터 현재까지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식민 정착민 국가로서 예외적 구조를 띠고 있다고 봐야 한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와 식민 점령은 일부 이스라엘 정치인들의 과도한 탓이기보다는 이스라엘 국가의 예외적 성격에서 기원한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리고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는 국제적으로 전례 없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연대 행동이 한 달 넘게 벌어지고 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추방도 이런 운동의 일환이다. 보통, 대사관은 자국의 입장을 주재국에서 대표하는 외교 활동의 거점이자, 친이스라엘 입장을 주재국에서 키우기 위해 로비하는 곳이며, 군부가 보낸 국방무관이나 정보기관 스파이가 활동하는 곳이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도 국방무관이 상주해,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협력에 관여한다.

지금 이스라엘 대사관은 자국의 가자 침공과 인종 학살을 옹호하는 프로파간다를 적극 퍼뜨리고 있다.

실제로 10월 11일 한국에서 첫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열리자, 이스라엘 대사관은 성명을 내어 집회 참가자들이 "반유대주의와 인종혐오를 넘어 IS(이슬람국가)와 같은 반인륜 범죄"에 동조

했다는 혐오당도 많은 비방을 했다.

이스라엘 국가와 시온주의에 대한 비판을 '유대인 배척'이라는 거짓된 프레임에 씌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이스라엘과 서구 우익의 상투적 수법이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국내 진보 정당들이 대사관 인근에 게시한 현수막도 문제 삼으며 철거를 요구했다. 현수막에 적힌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는 구호가 인종 학살을 의미한다는 곡해를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그러나 이 구호는,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무종교인 등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세속적인 단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대사관 추방은 국제적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인 BDS(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의 일부기도 하다. 국제적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집권 정당인 아프리카국민회의(ANC)는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와 모든 외교 관계 단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이스라엘 대사 추방을

요구하고 있고, 튀르키예 정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들은 자국 대사를 이스라엘에서 소환했다. 볼리비아와 벨리즈는 아예 이스라엘과 국교를 단절했다.

대부분의 석유와 에너지 자원을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들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 때문에 한국은 친서방 국가임에도 여전히 서방 국가들보다는 이스라엘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지만 한국 지배계급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하마스의 "테러"를 비난한 반면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아기바 토르는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랍 국가들, 특히 걸프 왕정들이 최근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며 공식적으로 가까워진 것도 한국 지배자들의 이스라엘과의 교류 확대에 대한 부담도 덜어 줬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10여 년 새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늘려 왔다. 아직 미국과 서방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무기 수출도 지난 10년 동안 3배로 늘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했다. 이런 교역 증가는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교류를 해도 괜찮은 국가이고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스라엘 프로파간다의 확산을 돕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의 본질적 성격과 그들이 벌이는 반인륜적 만행을 폭로하고, 이스라엘의 존립 정당성에 도전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이 맥락에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추방 운동은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분노하고 팔레스타인에 연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초점이 될 수 있다.

BDS의 일부이기도 한 이스라엘 대사관 추방 요구는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를 고립시키고 더 나아가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궁극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대학가에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왜 추방돼야 할까'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매년 수십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비록 아직 중동은 물론 많은 서구 나라들에 비해 매우 소규모이지만,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더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박이량
중동 전문지 <미들리스트 솔리데리티> 공동 편집자.
<노동자 연대> 기자

《팔레스타인의 저항》 저자 초청 강연

팔레스타인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필립 마플릿

이 기사는 11월 15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의 저항》 저자 초청 강연: 팔레스타인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QR코드로 영상 보기)의 발제와 마플릿의 토론 정리다. 영상에서는 전문 통역사인 천경록 동지의 순차 통역이 제공된다.



안녕하십니까? 저를 발제자로 초청해 주신 노동자연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첫째, 현재 팔레스타인 상황. 둘째, 이렇게 된 과정. 셋째,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략.

첫째, 현재 팔레스타인 상황은 어떤가요? 가자 지구 사람들은 야만적이기 이를 데 없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적개심 가득하고 잔인한 공격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기 보호 수단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제일가는 최첨단 무기를 퍼붓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국가가 통제하는 수용소와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좁은 땅을 드나드는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고, 경제 활동을 옥죄고, 가자 지구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해 왔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는 과거 남아공의 ‘반투스탄’(흑인 분리 거주 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아파트헤이트 국가’로 불리곤 하는데, 마땅히도 아파트헤이트 시절 남아공에 빗댈 만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지지자들은 이런 비교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인종차별 국가로 규정하는 것이 유대인 배척의 한 형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계 주요 인권 단체들도 이스라엘이 인종차별 국가라는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컨대 휴먼라이트워치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스라엘이 종족적·종교적 배타성에 기초한 사회이자 삶의 모든 핵심 영역에서 비유대인 주민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에 기초한 사회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정착민 식민 국가라는 이스라엘의 성격은 계속된 인종 학살 범죄로 드러나고 있다

오늘날 가자 지구의 참상은 팔레스타인인-아랍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증오가 커진 것과 궤를 같이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정치가 꾸준히 우경화한 것을 반영합니다.

현재 네타냐후 정부 인사 중에는 스스로를 파시스트로 규정하는 정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올해 초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는 스스로를 파시스트이자 성소수자 혐오자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네타냐후와 함께 가자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치에서 발전해 온 인종 학살을 추구하는 흐름의 일부입니다.

저는 “인종 학살”이라는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유대인이야말로 현대사에서 가장 공포한 인종 학살, 즉 유럽 파시즘이 자행한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주도해 가자 지구를 공격하며 인종 학살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시온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여기서 둘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다가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 것일까요?

이스라엘 국가의 인종차별적 어젠다는 유대교나 유대인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정착민 식민 국가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의 식민 지배와 맞닿아 있습니다. 거듭된 팔레스타인 위기의 역사적 책임은 결국 영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대의 다른 식민 지배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과거 로마 제국이 추구한 분열 지배 전략을 신조로 삼았습니다.

당시 영국은 이라크, 이집트, 페르시아만 연안, 팔레스타인 등 중동 지역 전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곳들은 영국 제국주의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었고, 제1차세계대전 즈음 이곳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이 지역의 가치는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제1차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당시 영

국 외무장관은 “연합국은 석유의 파도를 타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으스했습니다. 그 석유는 페르시아만 연안에서 나온 것이었고, 영국은 그곳 석유와 더 넓게는 중동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현지 아랍인들은 영국의 식민 지배에 맹렬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유럽에서 온 유대인 정착자들의 땅을 늘리고 세를 키우던 시온주의 운동에도 격렬히 맞서 싸웠습니다.

1920~1930년대에 영국은 아랍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시온주의 운동 중 어느 쪽을 포섭할지 신중하게 저울질했습니다. 당시 영국령 팔레스타인 총독은 여러 전략적 이익 때문에 영국이 결국 시온주의자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시온주의 프로젝트가 영국에 도움 되는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시온주의 프로젝트는 적대적인 아랍 세계라는 바다 한복판에 영국에 충성하는 유대인들로 이뤄진 작은 ‘열스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열스터는 아일랜드 독립 투쟁 이후 영국이 아일랜드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만들어 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1930년대에 팔레스타인인들의 항쟁을 탄압해 시온주의자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기초를 닦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영국은 시온주의자들의 핵심 목표를 지원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약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편 시온주의자들도 영국의 아랍 저항 진압 노력을 지원해 득을 보려 했습니다. 이렇게 시온주의자들과 영국 제국주의 사이에 공생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시온주의 운동은 영국 식민 당국과 사실상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48년에는 75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고 유대인만의 배타적 민족 국가의 기틀을 닦게 됩니다.

영국이 식민지를 지배할 기력을 소진해 중동에서 물러나자, 이스라엘은 영국 다음으로 중동을 지배한 제국주의 강대국인 미국의 후원을 받으려 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이스라엘은 서방 제국주의의 일부가 됐습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1987년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인티파다는 중동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낳았고, 이 운동은 자국 정권과도 대결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팔레스타인인들뿐 아니라 중동 지역의 대중 운동을 고무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2600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이 액수는, 이스라엘 다음 순위인 1960~1970년대 남(南)베트남의 두 배가 넘습니다.

미국도 페르시아만 연안의 석유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고, 이를 위해 이스라엘을 제일 중요한 동맹국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미국의 지원은 시온주의 운동에서 가장 극렬한 부위의 자신감을 크게 북돋았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의 가자·서안 지구 식민 점령을 지지한 것은, 네타냐후와 그의 동맹인 이스라

엘 정부 내 우익이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을 몰아내도록 부채질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마치 19세기 식민 지배 국가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이들은 건국 초기에는 영국의 행태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 후에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행태를 배웠죠.

식민 지배의 역사는 인종 학살로 점철돼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호주에서는 영국이, 북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이 원주민을 학살했습니다.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의 참상은 그런 역사적 사례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의 대중 투쟁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해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앞서 지적했듯, 이스라엘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중동 지배 전략에서 핵심적 구실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 1950년에 이스라엘의 주요 신문 〈하레츠〉는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서방의 “경비견” 구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서방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협할지도 모를 아랍 국가나 급진적 운동을 응징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동에서 거둬들인 전쟁과 충돌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구실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심대한 함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가장 반동적인 세력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예컨대 1970~1980년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긴밀한 동맹 세력은 레바논의 파시스트 운동 ‘카테브’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집트·요르단, 보다 최근에는 페르시아만 연안국들 등 미국과 동맹 관계인 매우 반동적 아랍 정권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1948년의 ‘나크바’(대재앙)

이후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은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1987년, 2000년, 더 근래에는 2015년에 일어난 팔레스타인 항쟁을 가리키는 “인티파다(항쟁)”라는 아랍어 단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인티파다라고 불리는 그 항쟁들은 제국주의에 맞선 운동으로서, 아랍 세계 전역에서 연대를 일으키고 비슷한 류의 항쟁들을 촉발했습니다. 예컨대 1987년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인티파다는 이집트·요르단·알제리·레바논·시리아·쿠웨이트에서 대중적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 운동들은 자국 정권과도 대결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민족 운동에는 전략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은 야세르 아라파트와 그의 조직인 파타의 지도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타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다른 아랍 국가에서 일어난 운동들과 분리시키려 했습니다.

아라파트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에게서 돈과 무기를 지원받고, 그 대가로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그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나크바로 인해 치명적으로 약화된 팔레스타인 사회에는 조직된 노동계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사회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봉기 인티파다를 승리로 이끌 정치적 힘을 갖춘 세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라파트의 지도하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결국 실패했고, 이것이 하마스가 부상한 핵심 배경입니다. 하마스와 그들의 정치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이 승리하는 데서 관건은 아랍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대중 투쟁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동 내 제국주의적 네트워크의 핵심적 일부로 통합되면 될수록,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이집트·시리아 등지에서 일어나는 혁명적 격변의 일부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10면으로 이어짐

▶ 9면에서 이어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은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을 중동의 더 광범한 투쟁과 결합하는 과제를 시급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마구 짓밟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는 중동의 가장 반동적인 정권들과 관계를 유지한 덕분에 계속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이집트 혁명은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를 타도했습니다. 무바라크 정권은 서방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이스라엘 지배자들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무바라크를 타도한 이고 무적인 이집트 대중 항쟁의 중심에는 이집트 노동계급이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 혁명을 두고 2011년 당시 전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바라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바라크는 무바라크 같은 반동적 통치자들에 맞선 혁명적 격변이 아랍 전역으로 확산되고 그것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까 봐 크게 우려했습니다. 매우 타당한 우려였죠.

지금도 노동계급이 중심적 구실을 하는 저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집트에서 벌어지는 일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이집트는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고, 또다시 투쟁이 분출할 공간이 큼니다.

이집트 노동계급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어깨 결고 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그 밖에 팔레스타인인이 사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종식시킬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은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대중 운동과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중 운동은 이스라엘이 의존하는 제국주의적 네트워크의 일부인 자국 정권들과 대결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국제 운동의 일부로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집회와 오늘 토론회 같은 행사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바깥 세계를 보면서 누가 자신들을 지지해 주는지 궁금해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면서, 혁명적 변화와 팔레스타인 해방을 가져올 더 광범한 운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발제자의 정리

훌륭한 주장과 질문이 너무 많아서 모두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먼저 미국과 동맹국들이 왜 그토록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한사코 유지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이고 역사적인 논점을 먼저 짚겠습니다.

몇백 년 전 영국을 비롯한 소수 유럽 국가들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저렴한 석탄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고도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채굴한 석탄은 산업 자본주의를 성장시키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19세기에는 훗날 세계 패권을 쥐는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성장했는데, 저렴한 텍사스산 석유가 그 동력이 됐습니다.

20세기가 되자 서방 자본주의는 중동 지역 석유에 기대어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는 화석연료에 중독돼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석유 회사, 특히 북미와 유럽의 석유 회사들은 중동 석유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총 석유 생산량은 막대하고 중동은 여전히 세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한사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979년 이란에서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 세력인 샤 왕조를 타도하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악명 높은 당시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을 잃었다. 하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이 두 배로 중요해졌다.”

앞으로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 거의 확

실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쏟아붓는 미사일들도 미국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뿌리, 부상, 모순

그다음으로 하마스에 관한 중요한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하마스는 사실 이슬람주의 운동입니다. 이슬람주의는 20세기 초 이집트에서 출현한 운동이고,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처음부터 모순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무슬림형제단은 1930~1940년대 영국의 이집트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출발했습니다. 무슬림형제단은 매우 영향력 있었고, 1940년대의 특정 시점에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은 중동 최대의 대중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은 이집트를 자신들이 집권한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를 꿈꿨고, 아래로부터의 독립적인 투쟁, 특히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투쟁에 반대했습니다.

무슬림형제단에는 진보적인 요소와 반동적 요소가 혼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는 아라파트가 이끄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실패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 특히 가자 지구 사람들의 대응으로 1970년대 말에 등장했습니다.

하마스는 2006년 총선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선거 결과는 PLO의 실패뿐 아니라 PLO가 이스라

엘과 맺은 재앙적인 합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아라파트는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합의된 이른바 ‘평화 프로세스’의 팔레스타인 측 파트너였습니다. 이 협정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독립 국가를 약속했죠.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약속은 헛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이 보장되기는커녕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식민 점령이 가속화됐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서안 지구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거대한 감옥처럼 취급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가 가자 지구, 오늘날에는 서안 지구에서도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하마스도 자신의 기원인 무슬림형제단처럼 모순적인 조직입니다. 한편으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폭압과 제국주의에 적극 저항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마스는 대중 투쟁을 건설하는 전략이나 팔레스타인의 투쟁을 다른 아랍 세계의 대중 운동과 연결시키는 전략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가자 지구 내부에서 하마스는 주민들을 꽤나 억압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자이지 이슬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팔레스타인 투쟁의 현 국면에서 이스라엘에 맞선 반제국주의 투쟁을 주도하는 것이 하마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마스에게 온갖 위선적인 비난을 퍼붓는 이스라엘측 주장과 세계 언론들의 관점에 단호히 맞



하마스 창립 35주년 기념 집회 이스라엘에 맞선 반제국주의 투쟁을 주도하는 하마스를 지지해야 한다



이집트 혁명 당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고 있는 이집트인들

섭니다. 이들은 하마스와 하마스의 이런저런 활동을 문제 삼지만 현실점에서 하마스가 억압에 맞선 투쟁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다.

PLO의 전략과 문제점

그다음으로 저는 수십 년간 팔레스타인 운동을 지도했던 PLO의 전략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시청자 토론에서 한 발언자가 아라파트의 전략에 관해 굉장히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야세르 아라파트와 PLO 지도부는 페르시아만 연안에서 1950~1960년대에 등장한 신생 팔레스타인 부르주아지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중동의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건설하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시리아, 페르시아만 연안국 정권들을 자신의 우방으로 여겼죠.

그런데 PLO가 1960년대 중반에 무장 항쟁을 시작했을 때 이를 수행한 게릴라 전사들은 팔레스타인 부르주아지 구성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요르단·레바논·시리아의 난민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라파트와 그의 동료들은 이 난민촌의 젊은이들을 이스라엘에 맞선 게릴라 투쟁에 기꺼이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청자 발언자가 잘 지적했듯이, 이 무장 투쟁이 성공하고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그 운동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병원을 지지 방문한 이집트 활동가들

아랍 정권들과 충돌하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70년 요르단에서 “검은 9월” 위기를 낳았습니다.

당시 요르단에서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에 대한 지지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요르단 정권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충돌이 벌어지자 PLO는 마비됐습니다. 아라파트와 그의 동료들은 요르단 정권을 다른 아랍 정권들과 같은 자신의 우방으로 봤기 때문에 요르단 정권에 정치적으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비극이게도 PLO는 그 위기 이후 다시는 그 위세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고 지금에 이르는 동안 PLO의 전략보다 훨씬 급진적인 팔레스타인 해방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집트 혁명과 팔레스타인 해방

이 점은 제가 다룰 마지막 논점과 이어집니다. 이는 청중 토론에서 발언한 이집트인 동지의 주장과 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11년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에서 일어난 혁명은 실로 이집트의 혁명적 운동과 팔레스타인인들을 연결시킬 전망을 열었습니다.

이집트 혁명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이집트 시위대가 카이로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몰려가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굉장히 용감한 시위 참가자들이 대사관 건물에 올라가 이스라엘 국기를 때던 모습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같은 때 많은 이집트 활동가들이 가자 지구 남부의 라파 검문소로

몰려가서 가자 지구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연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가자 지구와 이집트 사이의 이 국경 검문소를 “이집트의 수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011년 선거로 선출된 무슬림형제단 정권도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맞이하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집트 혁명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중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한 사건이었습니다.

2013년에 압델 파타 엘시시가 유혈 쿠데타를 일으켜 많은 혁명 투사들을 살해하자 이스라엘 지배자들은 뭇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엘시시는 엄청난 탄압을 지속하고 있고, 그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온전히 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모순으로 가득한 체제입니다.

엘시시 정권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세계 곳곳에 퍼뜨리려 애쓴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11년에 수많은 이집트인들을 반란에 나서게 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극도로 불안정한 시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반정부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롭게도, 이 시위대는 2011년 혁명 때 무바라크 정권을 타도하면서 외쳤던 바로 그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민중은 정권 타도를 원한다!”

앞으로 이집트에 더한층의 격변이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의 역사 때문에 중동 지역 전반이 기본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중동 전역에서 광범한 투쟁이 벌어지면, 그동안 점점 이스라엘과 긴밀해져 온 아랍 정권들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서방 제국주의를 주도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려 애쓸 것입니다.

더 큰 투쟁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하신 이집트 혁명가 동지를 포함해 중동의 혁명가들은 앞으로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동지들이 지난 혁명의 성공과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12면으로 이어짐

팔레스타인

왜 두 국가 방안은 해법이 될 수 없는가?

김인식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전례 없는 규모로 벌어지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는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팔레스타인 독립”)이다.

국제적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미국 등 서방 정부들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이스라엘 규탄을 유대인 배척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운동을 진정시키려고 ‘두 국가’ 방안을 꺼냈다.

“[하마스의 공격 전인] 10월 7일 전의 현상 유지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 이 위기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그것은 두 국가 방안[이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도 최근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마무드 아바스를 만나 이렇게 약속했다.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팔레스타인 주민의 정당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안타깝게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안에서 두 국가 방안이 그나마 실현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필요한 전망은 무엇인지, “팔레스타인 독립” 구호에 어떤 정치적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두 국가 방안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경계를 따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자의 국가를 세워 공존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두 국가 방안은 오슬로 협정(1993년 체결)의 파산을 통해 공상임이 입증됐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지도부는 오슬로 협정을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창건을 향한 첫 걸음으로 여겼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환상임이 드러났다.

2000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중재해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바라크



아파트헤이트 이스라엘은 인종 분리 장벽을 세워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한다

와 PLO 의장 야세르 아라파트가 캠프 데이비드(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에서 만나 오슬로 협정의 “미해결 쟁점들”을 논의했다 — 이스라엘군 전면 철수, 동예루살렘의 지위, 유대인 정착촌,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권 등.

이 협상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유대인 정착촌과 이스라엘군 기지에 둘러싸인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을 제안했다. 사실상 “반투스탄”을 제안한 것이다. 반투스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분리 거주 구역을 뜻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요구에 일절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 협상은 결렬됐다.

캠프 데이비드 협상은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 수립을 인정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재확인시켜 줬다.

시온주의자들은 역사적 팔레스타인 영토 전부를 이스라엘 땅의 일부로 여기고 그곳에 유대인만의 배타적 민족 국가를 세우려 해 온 것이다.

두 국가 방안의 근원

두 국가 방안의 근원은 1947년 11월에 채택된 유엔 결의안 181호였다(그 효시는 1937년 영국 필위원회 의 분할안이었다). 시온주의 정치인들은 이 결의안에 근거해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역사적 팔레스타인을 분할하는 두 국가 방안은 시온주의 운동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후원을 받아 인종차별적 이스라엘 국가를 창건하는 출발점이 됐다.

이스라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은 “후대가 치를 역사적 실수”라고 못마땅해 했지만, 유엔 결의안은 이스라엘에 훨씬 유리했다.

인구로 보나 소유지 규모로 보나 아랍인에 비해 훨씬 적었던 유대인에게 전체 면적의 57퍼센트를 분할했다. 게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

옥한 땅과 해안 도시를 유대인이 차지했다.

그럼에도 새 이스라엘 국가하에서 조차 팔레스타인인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문젯거리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1948년 초부터 “강제 이주,” 즉 인종 청소를 벌였다.

사실 팔레스타인인 “이주”는 시온주의 전략의 핵심이었다. 때로는 아랍 군주들의 동의를 얻는 “자발적” 이주의 형태를 띠기도 했지만 대체로 “강제” 이주였다. 벤구리온은 이미 1938년 5월에 “나는 강제 이주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1948년 나크바(대재앙)로 팔레스타인인 100만 명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다. 고향으로 귀환할 권리도 빼앗겼다. 가장 악명 높은 인종 청소

▶ 11면에서 이어짐

이처럼 팔레스타인 문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하고 현재 가자 지구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영국은 이 문제에 특별한 책임이 있죠.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박

탈하는 데서 역사적인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영국에서는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의 형제

자매들이 자신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이 벌이는 활동도 그런 연대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위기의 역사를 이해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를 표할 태세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사회자, 통역자, 모든 참가자 여러분, 특히 발언해 주신 이집트 동지에게 감사드리면서 제 발언을 맺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가자 지구의 고통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역 천경록

칼라시니코프와 올리브 나뭇가지

지금은 오슬로 협정의 기만성이 널리 폭로되지 않았던 1993년이 아니다. 지난 30년 동안 PLO 지도부의 타협이 모든 전선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에 악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팔레스타인 독립 운동은 1930년대 영국 식민주의에 맞서 싸울 때부터 유대인과 아랍인, 그리스도인과 무슬람이 함께 사는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단일 국가 창건을 지향했다.

1970년대 초반까지 PLO 지도부는 한 손에 칼라시니코프 소총을 쥐고 다른 한 손에 올리브 나뭇가지를 들고 팔레스타인 독립 투쟁을 벌였다. 아라파트는 1974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나는 항상 올리브 나뭇가지와 총을 갖고 다닌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뒤 PLO 지도부는 두 국가 방안을 수용하는 실리주의 노선으로 후퇴했다. 마침내 1988년 아라파트는 무장 투쟁 포기 선언을 했다.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면 언젠가 “정상적인”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될 것이라는 어렵풋한 약속(오슬로 협정)을 수용하는 대가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서안 지구라는 섬에 대한 제한된 통제권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PLO가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고 서방 제국주의와 화해하는 길로 들어선 결과는 무엇인가?

오슬로 협정 체결로부터 30년이 지난 뒤 서안 지구의 유대인 정착자 수는 70만 명에 이르렀고, 그들이 팔레스타인인의 땅을 계속 빼앗으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완전히 무기력해졌다.

이렇듯 이스라엘 국가는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이므로 과거에도 팔레스타인인들과 공생할 수 없었고 지금도 공생할 수 없다.

이스라엘 국가는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단일 국가로 대체돼야 한다. 그럴 때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그 국가와 협력하는 부패한 아랍 정권들을 전복하기 위한 아랍 혁명(2011~13년에 잠깐 났던 것과 같은)이 필요하다.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의 대표적 구호 이스라엘이 강탈한 땅을 빠짐없이 되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는 1948년 4월 데이르 야신 마을 학살이었다.

이스라엘은 나크바를 통해 팔레스타인 땅의 80퍼센트를 차지했다. 나머지 20퍼센트가 지금의 서안 지구인데, 요르단(당시 국명은 트랜스요르단)이 이 지역을 장악했다. 요르단 국왕은 시온주의 운동 지도부와 공모해 유엔의 1947년 분할안을 관철 시킨 것이다. 요르단 지배자들의 팔레스타인 배신의 역사는 이토록 유구하다.

이스라엘 내에 남은 팔레스타인인들은 1966년까지 계엄령 통치를 받았고, 오늘날에도 기껏해야 이등 시민 취급을 당한다.

시온주의 무장 세력이 나크바를 벌일 때, 당시 소련 독재자 스탈린은 이를 지지했다. 이스라엘을 중동의 동

맹국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소련의 당시 위성국 체코슬로바키아는 시온주의 무장 세력인 하가나에 중요한 무기들을 공급했다. 하가나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핵심이 됐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전략적 위상은 이내 분명해졌다. 석유가 매장돼 있는 중동에서 서방 제국주의의 이익을 수호하는 무장한 요새였던 것이다.

1967년 6월 ‘6일 전쟁’은 이스라엘의 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줬다. 이스라엘 군대가 서안 지구, 가자 지구, 동예루살렘, 골란고원(시리아), 시나이반도(이집트)로 전광석화처럼 진격해 점령했다.

미국과 영국이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가 주도한 아랍 민족주의 운동을 견제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동원해 이스

라엘군의 공습을 지원한 덕분이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단번에 승리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미국도 1967년 이전의 국경선에 근거한 두 국가 방안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렵잖게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1982년 시나이반도에서 철수했지만, 서안 지구와 예루살렘, 골란고원을 계속 점령했다. 1948년 국경선은 시온주의 지도자들에게 불만족스러운 타협이었기 때문이다.

국무 시온주의자들의 “대(大)이스라엘” 프로젝트의 핵심은 예루살렘과 서안 지구다. 이스라엘은 서안 지구를 (서기 1세기의 지명을 사용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른다.

현 팔레스타인 저항의 쟁점들을 다룬 노동자연대 TV 영상 모음

온라인 토론회 영상,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장 영상들을 만나 보세요!



bit.ly/477esMy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책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184쪽, 9,000원

팔레스타인의 저항 -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필립 마플릿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440쪽, 20,000원

팔레스타인 비극사 -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
일란 파페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568쪽, 25,000원 (절판)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 정착민 식민주의와 저항의 역사, 1917-2017
라시드 할라디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448쪽, 25,000원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받는 대중적 지지의 원천은 무엇인가?

소피 스콰이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은 매우 잔인하고 수많은 인명을 앗아 가고 있지만, 대체로 신중하고 느리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과 대결하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광범한 지지를 받고 수만 명의 전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군과 정부가 알기 때문이다.

“하마스”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열심”이라는 뜻이다. 하마스는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최다 득표해 가자 지구를 통치하게 됐다.

하마스는 전체 132석 중 73석을 획득했다.

하마스는 어린이집, 무료 급식소, 도서관, 스포츠 클럽, TV 채널, 아동 잡지를 운영한다.

그런 서비스는 이스라엘의 점령 때문에 굶주리고 억압받고 살해되는 평범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다.

하마스의 창설은 ‘무슬림형제단’으로 알려진 이슬람주의 정치 단체들이 중동에서 부상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팔레스타인에서 무슬림형제단은 1946년에 창설됐다.

평범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의식에 조응하고 그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하마스는 창설 이래 여러 차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이론·이데올로기·정치적 주장을 조정했다.

하마스는 제1차 인티파다 와중에 작성한 1988년 강령 문서에서 자신의 목표



2012년 서안 지구에서 열린 하마스 창립 25주년 집회

를 제시했다.

하마스의 정치적 경쟁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모색하고,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재하는 협상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마스는 비타협적 투쟁을 강조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파괴와 시온주의에 맞선 성전聖戰을 추구하고,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포함한 ‘평화협정’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마스의 최초 강령 문서에는 팔레스타인을 이슬람 국가로 만든다는 목표도 포함돼 있었다. 유대인에 대한 폭력을 촉구하는 유대인 혐오적 구절도 있었다.

그러나 하마스는 자신의 주장이 팔레스타인 대중의 의식에 조응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면 입장을 조정했다. 결국 2017년에 강령 문서를 개정했다.

팔레스타인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는 수사는 삭제됐다. 이는 하마스가 오로지 종교적인 사회를 수립하려고만 한다고 우려하는 세속적 팔레스타인인들을 염두에 둔 수정이었다. 하마스는 2006년 내각을 꾸릴 때 기독교인도 한 명 포함시켰다.

또, 2017년 개정 강령은 하마스의 투쟁이 “시온주의 프로젝트”에 맞선 것이지 유대인에 맞선 종교적 대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하마스는 유대인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적으로 삼고 싸우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시온주의자들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오히려 시온주의자들이야말로 자신의 식민 점령 프로젝트와 불법 단체[이스라엘 국가]를 유대교·유대인과 끊임없이 동일시한다.”

하마스의 최초 강령 문서는 운동 내에서 여성이 해야 할 구실을 자녀 양육으로 한정했다. 이 대목은 2017년 개정 때 삭제됐다.

2021년 자밀라 알산티는 여성 최초로 하마스 정치국원에 임명됐다. 하마스 여성 회원들이 수십 년 동안 압력을 넣은 결과였다.

하마스 지도부가 마지못해 그 압력에 응한 것이기는 하지만, 알산티는 여성이 정치국원 선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치국원으로 뽑힐 수 있었다.

2017년 개정 강령은 한 가지 중대한 후퇴를 했다. 팔레스타인 국가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함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계략으로 하마스가 성장했다고?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부상하도록 돈을 댔나? 간혹 이런 주장은 하마스가 그저 시온주의자들의 책략으로 생겨났고 지금도 그것이 하마스의 본질임을 뒷받침하려고 제시된다.

1980년대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군정을 이끌었던 이스라엘군 준장 이츠하크 세게브는, 하마스 등의 이슬람주의 단체들이 세속적 PLO와 파타는 물론 좌파 조직들에도 대항하는 “균형추”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뉴욕 타임스〉에 말했다.

세게브는 이스라엘이 모스크에 기부금을 냈다고 말했다.

이것이 PLO에 대항하는 정치적 대안을 만들어 내려는 이스라엘의 계략이었다면, 지금 그 계략은 어마어마한 역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스라엘은 오늘날 하마스가 받는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부여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그 수장 마무드 아바스를 지원하는 데에 훨씬 열심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때때로 이스라엘과 충돌할지는 몰라도, 투쟁적인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을 단속하는 데서 핵심 구실을 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보안군은 지난달 여러 차례 시위 참가자들을 폭행했다.

PLO의 전략적 실패가 하마스 부상의 주요인이다

2006년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총선 승리는 파타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를 표현했다.

1993년 오슬로 협정 이래 점령지 팔레스타인인들의 처지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빈곤과 고통, 이스라엘 국가의 억압이 더 심해졌다.

집권당 파타와 그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이 일정한 시간에 걸쳐 누적됐다. 그들은 그전까지 50년 넘게 팔레스타인인들을 대표했던 세력이었다. 파타는 오슬로 협정을 체결하면서 타협이 실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을 설득했다.

협상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얻어 내려는 파타의 시도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 체제를 굳힐 더 많은 기회를 줬고, 그 결과 평범한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과 고난은 더 깊어졌다.

파타와 달리 하마스는 평범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를 훨씬 더 분명히 대변하며 오슬로 협정이 사기라고 분명하게 주장했다.

점점 파타 지도자들의 이해관계와 목표는 평범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익과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사람들이 파타 지도자들의 부패에 신물을 냈다. 그런 지도자들의 하나

로 가자 지구 보안군 전 수장 무함마드 다흐란이 있다.

1997년 다흐란은 가자 지구 북동부 카니 검문소의 화물 터미널에서 걷은 세금을 개인 계좌로 착복한 것이 폭로돼 부패 스캔들에 휩싸였다.

평범한 팔레스타인인들은 파타 지도자들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자신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됐다.

하마스를 비롯해 중동 전역에서 이슬람주의 정치 단체들이 성장한 것은 스탈린주의의 영향을 받은 주요 좌파 정당들이 1960년대 이래 실패를 거듭한 결과이기도 했다.

하마스의 지하 터널은 정당하고 효과적이다

전쟁에서 지하 터널(땅굴)은 비열한 전술이 아니라 세력 관계를 고려한 전술이라고 사 이먼 바스케터는 설명한다.

지하 터널(땅굴)은, 저항 세력이 침략 군에게 기습 공격을 가한 후 지하로 은신할 수 있도록 여러 갈래로 뻗어 있고 그 출입구는 은폐돼 있다. 처음에 터널은 고대 제국의 공격에서 사람들을 피신시키기 위해 지어졌다.

처음에 그것은 순전히 그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군사적 공격 용도로 확장됐다. 일단 어두운 통로로 적군을 유인하면 매복해 제거할 수 있었다.

이번 중동 반란에서 핵심으로 거론되는 지하 터널은 서기 132년경 로마의 지배에 맞선 바르 코크바 유대인 반란 기간 중 헤로디움에서 처음 건설됐다.

그 땅굴은 더 강력한 로마군에 대해 반란을 몇 년간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준 무기였다. 로마의 대응은 불을 질러 땅굴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연기를 피해 땅 위로 올라오게 만들거나 그들을 질식사시키는 것이었다.

현재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총 연장이 약 500킬로미터에 달하고 약 1300개의 출입구를 가진 지하 터널망을 구축했다. 이스라엘이 지하 터널에 대처하는 방식 한 가지는 가짜 입구를 찾고는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수도관을 지하 터널이라고 주장했고, 지하 창고를 두고도 그랬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따라하기라도 하려는 듯, 이스라엘은 지하 터널에 접근하기 위해 지상의 모든 병원과 학교, 난민촌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했다.

로마 제국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하 터



하마스의 지하 터널은 무장력이 우세한 이스라엘에 반격하기 위한 수단이다

널은 저항 세력이 군사력 불균형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총을 들고 패러글라이더를 탄 하마스 전사들은 F-35 전투기를 이길 수 없다. 새총은 전투 헬리콥터의 상대도 안 된다. 하지만 최첨단 드론으로도 깊이 20미터의 지하를 볼 수는 없다. 탱크도 지하 터널에 들어갈 수 없고 지하에서는 전투 부대원들이 GPS나 무전기로 길을 안내받지도 못한다.

군사력 불균형

하마스의 지하 터널은 무장력이 우세한 적에게 반격하는 수단이다.

하마스 전 지도자 칼리드 메샬은 2014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진 군사적 균형을 감안해, 우리는 혁신적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다. 지하 터널은 우리의 혁신 중 하나였다.”

지하 전투에는 잔혹하고 유구한 역

사가 있다. 하지만 땅 속이 본격적으로 전쟁터가 된 것은 지난 세기의 전쟁을 겪으면서였다. 이달 초, 영국 정치권이 그토록 기념하려고 한 제1차세계대전에서 땅굴은 대량 학살을 위해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제1차세계대전의 참호전을 치를 때, 영국과 독일 모두 무인 지대에 땅굴을 만들어 상대방의 발 아래 폭발물을 설치했다. 그 절정은 벨기에 메시느에서 독일군 진영 아래로까지 뚫던 8킬로미터 길이에 달하는 땅굴이었다. 1917년 6월 7일 영국과 그 동맹국은 약 600톤의 폭약을 터뜨려 1만 명을 죽였다.

하마스 지하 터널과 더 직접적으로 비교할 만한 것은 베트남 전쟁에서 쓰였다.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북베트남군은 땅굴을 매우 효과적인 게릴라 무기로 활용했다. 베트남군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깊은 땅굴을 은신처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땅굴에

는 통신망과 보급로, 병원, 부엌, 음식과 무기 저장고, 거주지, 심지어는 전투원을 위한 극장까지 있었다.

2007년 이스라엘이 하마스 영향력 강화에 대응해 봉쇄를 더욱 무자비하게 강화하자, 가자 지구와 이집트 사이의 국경 지대 지하에 밀수를 위한 터널망이 거대하게 형성됐다. 이 지하 터널들은 이스라엘의 봉쇄를 우회해서 무기나 전자 기기부터 건설 자재와 연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을 반입하는 데에 사용됐다.

이집트 권력자들은 이 지하 터널망을 파괴하기 위해 바닷물을 퍼부어 침수시키거나 붕괴시키는 등 열을 올렸다. 지하 터널 건설을 하마스의 비열한 음모처럼 묘사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오히려 그것은 전력상 열세인 상황에 대한 완전히 합리적인 대응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인들이 간혀 있는 ‘감옥’으로 묘사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죄수들’은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지하 터널을 파고 있다. 지금 서방의 지도자들은 더 많은 살육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지하 터널 때문이라고 비난하지만, 오히려 카를 마르크스가 혁명을 가리키며 한 말이 지하 터널에 있어서는 더 그럴듯하다.

오랫동안 저항은 압제자의 무기에 짓눌린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야 밖에서 저항이 전개되고 있고, 결국 지면 위로 올라와 우리의 억압자들을 경악하게 한다. 그리고 저항이 눈 앞에서 벌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마땅하다. “잘 봤도다, 노련한 두더지여!”(《루이 보나파르트와 브뤼메르 18일》)

출처 Simon Basketter, 'What lies beneath Israel's obsession with Hamas tunnels?' (2023. 11. 18) / 번역 김샘

▶ 16면에서 이어짐

있는 시민들의 주목을 모았다. 대열이 행진 중에도 계속 늘어났다. 준비한 팻말이 동났다.

사회자는 이날 집회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백만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일부임을 알렸다.

오선희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이스라엘 대사관을 규탄했다.

“얼마 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 철

거를 요구했습니다. 진정 철거되거야 할 것은 전범 국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번 집회 개최를 위해 애를 쓴 이집트인 아므르도 지속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수십 년 동안 끔찍한 억압을 겪고 지금도 포위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웅적인 용기와 저항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 미국과 유럽의 정권들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문을 두드립니다.”

시다.”

정리 집회에서는 팔레스타인 유학생의 편지를 대독했다. 그의 가족은 가자 지구에 있고, 며칠째 가족과의 연락이 두절됐다.

“여러분이 저의 희망입니다. 용감하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팔레스타인 저항을 위해 싸우는 모든 양심에 감사드립니다.”

참가자들 모두 숨을 죽이고 팔레스타인 유학생의 메시지를 들었다. 그리고 목청껏 다시 외쳤다.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 “프롬 더 리버 투더 씨, 팔레스타인 월 비 프리”

정리 집회 중에도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대열로 들어왔다. 구호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다음 집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서로 약속했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구성과 활력은 앞으로 이 운동이 더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연대를 확대해 나가자!

정성희



가자지구에 가족이 있는 재한 팔레스타인 유학생의 편지

“여러분이 저의 희망이니 침묵하지 말아 주세요”

11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서 가자 지구에 가족이 있는 팔레스타인 유학생이 보낸 절절한 편지가 대독돼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가족과 연락이 며칠째 안 되고 있는 이 유학생은 참혹한 처지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계속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편지의 전문을 번역해 실는다. [] 안의 글은 번역자가 넣은 것이다.

“지금 거신 번호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 이 음성 메시지를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대신 희망이 끊어져 버리고 의심·혼란·불안으로 가득 찬 상처 주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들이 괜찮은지, 아니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직 살아 있는지, 먹을 것이 있는지, 굶주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목이 마르지는 않을까? 거기에 물이 있을까? 화장실은 편하게 갈 수 있을까?

깨어 있는 동안에도 수천 가지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고 꿈속에서 저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나치 이스라엘 점령이 저에게 강요한 일상이자 디아스포라로 살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매 순간 가족을 그리워하고 가족에 대해 걱정합니다. 지난 42일 동안 매일 밤 저를 괴롭힌 악몽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어린이 5500명 이상, 10분 당 1명 꼴로 목숨을 잃었다(20일 현재)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투하한 폭탄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 2발에 맞먹는 양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는 하루 평균 300명씩, 총 12000명 이상의 무고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량 학살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몽상가이자 연인이자 열정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수, 댄서, 학생, 의사, 엔지니어, 음악가, 대중연설가, 교사, 어머니, 아이입니다. 우리는 민족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의 상황은 매우 암울합니다. 간호사들이 몇 시간씩 직접 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나 보급품도 이제 없습니다. 의료 수술은 마취 없이 시행됩니다. 어제 한 어린 소녀의 사지가 마취 없이 절단됐습니다. 이런 일이 자녀

에게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유엔 산하 학교인 대피소 센터에는 평상시에 수천 명의 학생이 수용됩니다. 지금은 수만 명의 난민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물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폭격 소리에 겁먹은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폭격 소리가 들렸다면 걱정 없어. 너를 죽일 미사일 소리라면 들을 수 없을 거야.”

가자 지구에서는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목마름 속에 드디어 비가 내려 마실 물을 얻게 돼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집과 꿈이 함께 잔해 속에 묻혀버려서 옷가지 하나 구하기 힘든 상황에 극심한 추위를 맞아 슬퍼해야 할지.[*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겨울은 우기이다]

목인하거나 못 본 체 하지 않는다면

이런 범죄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인류와 인류 문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병원, 유엔 센터, 예배당, 심지어 민간인의 집(수천 채)까지 폭격을 받아 주민의 머리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문명화된 세계가 이런 일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 역사를 다룬 글을 읽을 때마다 영감을 받습니다. 점령에 처해 한국인이 얼마나 굳건하게 싸워 승리했는지를요. 이를 보며 제 조국인 팔레스타인도 오늘날 한국처럼 점령에서 벗어나 문명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휴전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여러분의 요구를 계속 이어가 주세요. 압제자들을 지지하는 기업에 대한 보이콧도 계속해 주세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학살에 연민과 경각심을 계속 가져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제가 다시 연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저의 희망이니 침묵하지 마세요.

용감하게 시간을 내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팔레스타인 저항을 지지하며 싸우는 모든 살아 있는 양심에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

프리 팔레스타인! 모두 감사합니다.

번역 정성희

부산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11월 19일 200여 명이 행진하다

11월 19일 부산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이 성공적으로 열렸다.

한국인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이집트·파키스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모로코·남아프리카공화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프랑스·영국·미국 등 여러 나라 출신이 참가했다.

그야말로 국제적인 팔레스타인 연대

목소리가 부산에서 울려 퍼졌다.

참가자 모두 열정적이고 능동적이었다. 집회 시작 전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배너와 팻말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 주며 거리의 사람들에게 집회를 홍보했다. 집회·행진 내내 참가자들은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다.

활력 있는 행진 대열은 주말 도심에

▶ 15면으로 이어짐

11·25 팔레스타인 연대 10차 집회·행진

학교, 병원까지 무차별 공격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 인종 학살 규탄한다

11월 25일(토) 오후 2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주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사람들 ※ 아랍어·한국어 통역 제공
문의: 010-7550-2131

후원 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 (예금주 백은진)
보내 주신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개최를 위해 사용됩니다.